

Rocca di Papa, 25 ottobre 2014

Collegamento CH – “Il nostro obiettivo: che tutti siano uno”

APERTURA E SALUTI

(musica – immagini tratte dal film “Il popolo migratore” di Jacques Perrin)

Speaker: 가을에 V 자 형으로 남쪽을 향해 날아가는 야생 거위 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날아가는 이유와 관련해 과학이 깨달은 발견을 생각해 볼 수 있다.

v 자 형으로 날면 한 새가 혼자서 날아갈 때와 비교해 전체 무리의 비행력이 적어도 71%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 새가 무리에서 멀어질 때, 혼자서 날아가는데 있어 예기치 않은 공기 역학의 저항을 느끼게 되어 상승기류를 활용하기 위해 신속하게 무리에 합류하게 된다.

선두의 거위가 지치면 옆으로 비켜나고 다른 거위가 선두의 자리를 차지한다.

거위들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앞의 새들에게 속도를 유지하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이다.

끝으로 한 거위가 병에 걸리거나, 총에 맞아 상처를 입어 무리를 벗어날 때는 다른 두 마리가 그 거위를 도와주고 보호하기 위해 함께 떨어져 나간다. 그 거위가 다시 날 수 없거나, 혹은 죽을 때까지 함께 남아있으며, 그 때서야 비로소 무리에 다시 합류하기 위해 그들 끼리 날아가거나 혹은 다른 무리와 함께 날아간다.

(ambiente e applauso)

Salvatore Lamagna: 전 세계의 모두에게 인사합니다. 이 박수갈채는 많은 말보다 다시 한번 이 합동전화를 살기 위해 함께 만나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Adriana Rodolico: 우리가 방금 보았던 아름다운 영상들은 진정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세상 곳곳에서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더 강하게 다져주며, 야생 거위 떼처럼 함께 하는 여행에서 서로 도와주도록 합니다.

Salvatore: 이제 여러분이 있는 세상의 몇몇 장소와 연결하겠는데, 캐나다, 밴쿠버로 시작하겠습니다. 카를로스과 노바 프레이레, 여보세요?

Nova: 네, 안녕하세요!

Salvatore: 얼마 전에 캐나다 국회에서 일어난 일로 인한 여러분의 당혹감을 우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Nova: 네, 감사합니다! 태평양 끝에서 인사를 보냅니다. 저희는 약 2 백 5 십만 명의 인구를 지니고 산과 바다 사이에 위치한 아름다운 대도시 밴쿠버 포콜라레에 열정적인 20 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Carlos: 먼 거리로 인해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도시에서 합동전화를 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밴쿠버의 여러 도시만이 아니라 캐나다 서부 지역의 빅토리아, 칼가리, 에드몬튼, 삭스톤 등으로, 우리도 세계적인 일치에 함께 합니다.

Adriana: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스웨덴으로 날아가겠는데, 발렌티나 구치가 얘기해 줍니다. 여보세요?

Valentina: 네, 잘 들려요! 스톡홀름의 젠들과 합동전화를 하기 위해 여기 포콜라레에 모인 이들의 이름으로 인사전해요. 2 주 전에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들과 구역공동체와 함께 폰템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이곳의 우리는 작은 양떼이지만...정말 성공적이었는데, 93 명이 참석했어요. 우리는 폰템을 소개하며 거기에서 얼마 간 지냈던 우리 중 몇 명의 증거를 얘기하며 폰템을 소개했어요. 예를 들어 웨일라는 폰템의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변두리인 여기 스웨덴에서 느끼는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 전해요.

Salvatore: 발렌티나 감사합니다. (*applausi*)

이 강당에서도 전 세계를 볼 수 있는데, 합동전화를 하며 서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보나벤투라 신부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나벤투라 신부님은 초창기 때 끼아라를 알게 된 첫 수도자 중 한 분이십니다. (*applausi*)

이제 우리 두 사람을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Adriana: 아드리아나와 살바토레입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나폴리에서 살았으며, 그는 엔지니어이고 저는 40 년 간 은행 창구에서 일했고, 3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총본부에서 운동을 위해 기여해야겠다고 결정했고, 장성한 3 명의 아이들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Salvatore: 이제 페데리카와 미카엘라를 소개하겠는데, 저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중계되는 동안 여러분의 메시지를 모아 읽어줄 예정입니다.

Federica Comazzi: 네, 0039 3428730175 이 번호로 메시지나 collegamentoCH@focolare.org 메일로 보내시면 되어요.

Mikaela Comazzi: Collegamento CH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어요.

Adriana: 감사합니다.

이제 50 년 전에 태어난 운동의 첫 소도시, 로피아노와 연결하겠습니다. 스테파니아 타네지니와 다비데 비가노, 여보세요?

Stefania Tanesini: 네, 여보세요.

Adriana: 차오, 이 시기에 중요한 행사가 열렸지요. 이탈리아 수상의 참석, 교황님의 비디오 메시지, 한 TV 방송도 연결된 우리 모두를 위해 행사를 촬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기념일을 맞은 올 해 무엇을 기대하는지요?

Stefania Tanesini: 우리 두 사람이 답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지난 10 월 4 일 로피아노랩 중에 열린 50 주년 개막식에는 2000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로피아노의 오래되고 새로운 시민들에게서, 전 세상에서 수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50 년 동안 백 2 십만 명의 사람들이 로피아노를 거쳐 갔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기대치 못했던 선물은 소도시 생일을 맞아 녹음한 교황님의 아름다운 비디오 메시지였고, 끝에 “다시 만납시다.”라고 우리에게 인사하셨을 때의 감동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Davide Viganò: 실제로 이 행사로 행사들로 가득한 한 해가 시작되었고 2015 년 12 월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로피아노의 역사, 경험, 형제애의 전망들을 얘기하기 위해 적어도 8 개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특별한 순간은 2 월 27 일로, 그 날 소피아 대학은 콘스탄티노플 바르톨로메오 1 세 총대주교께 “일치의 문화” 첫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로피아노 50 주년이 로피아노에서 합동전화를 하기 위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Adriana: 너무나 멋진 생각입니다. 일단 스테파니아와 다비데에게 감사드리고, 로피아노의 모든 시민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Adriana: 로피아노의 영상들 가운데 노랑색 별이 새겨진 파랑색 깃발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 운동 소도시의 상징입니다.

이제 이 후부터 포콜라레 운동 로고를 소개하겠습니다, 국제 그룹이 만든 것으로, 이 순간 이후부터 44 개 언어로 전 세계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FOCUS SULLA FAMIGLIA

Salvatore: 주제를 바꾸어, 로마에서는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가정에 할애한 가톨릭 교회 특별 주교 시노드가 끝났습니다. 가정의 도전들은 전 인류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은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가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시노드 전날 포콜라레 운동에 속한 몇몇 사람들의 증거를 담아 이탈리아 국영 방송 RAI 2 에서 방영된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Cronista del TG: ... 가톨릭 신자들도 자신의 신앙을 거슬러가는 참으로 고통스런 어려움과 가정 실패를 겪게 된다. 라우라 잘리가 인터뷰한 증거들을 보자.

Laura Gialli: 때때로 너무나 쉽게 가정과 삶은 결코 직면하리라 상상지도 못했던 상황에 처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누군가는 혼인 서약에 충실하게 남을 수 있고, 반면에 누군가는 다른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해당된다. 바올로 리치는 1981 년에 결혼해 3 명의 자녀를 두었던 아내와 결코 헤어지고 싶지 않았으나, 그녀는 자유를 요구했다. 그렇게 2007 년 이혼에 동의하게 된다. 그 후부터 바올로는 부인에게 충실하게 남으며 홀로 살게 된다.

Paolo Ricci: 나는 화성인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며, 단순하게 자신의 몫을 하는 사람,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Laura Gialli: 바올로는 이런 선택 속에서 포콜라레 운동의 공동 영성에서 도움을 받음을 느낀다. 마샤와 마리오도 경험을 나누었다. 로마에 거주하고 결혼한 지 10 년 된 40 대의

부부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다. 각자의 월급, 집, 오랜 기다림 끝에 얻게 된 아들. 하지만 위기는 그들을 무너지게 했다. 짧은 시간 안에 둘 다 직장을 잃었고, 그들의 관계도 조각났다.

Mascia: 부부의 공간, 즉 대화와 위로의 공간이 부족해졌어요. 잠 못 이루는 밤들, 이외에도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튼 실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 부부 사이를 위험에 처하게 했어요.

Mario: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 있지 않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지나갔고 같은 어려움에 해결책을 찾았던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Laura Giali: 54 살의 나폴리 출신 티치아나는 그녀의 가정을 구할 수 없었다. 22 살에 결혼해, 딸 하나를 두었다. 13 년 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여러 번 집을 나갔다가 되돌아 오곤 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지속할 의미가 없었다. 얼마 간의 고독이 지난 후 티치아나는 이혼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로부터 아들이 태어났다.

Tiziana: 이런 상황으로 인해 영성체를 모실 수 없었어요. 이 사실은 제게 늘 어려움이었지요. 저는 시노드에 어떤 큰 혁신을 청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회의 살아있는 한 부분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¹

Adriana: 시노드에는 옵서버로 포콜라레 운동에 속한 루완다의 에메르트와 듀드네 카싱가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8 명의 자녀가 있지만 4 명은 입양한 아이들로, 94 년 종족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고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듀드네는 산부인과 의사이고 에메르트는 경제학자로, 함께 산모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루완다, 브룬디, 우간다, 케냐의 약혼자와 부부들 양성을 돌보고 있으며, 시노드에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전화가 연결되었을 것으로, 여보세요?

Dieudonné: 네, 안녕하세요!

Adriana: ciao Dieudonné, Emerthe!

Emerthe: Ciao! (*applausi*)

Adriana: 여러분 지역의 약혼자들과 가정을 위해 어떤 경험을 가져갔는지요?

Dieudonné: 시노드는 가정을 위한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주교님들의 단순함과 경청은 우리에게 가정인 교회의 아름다움과 부유함을 발견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교황님의 현존과 경청은 우리에게 삶의 수업이었습니다.

Emerthe: 저희는 가정과 젊은 약혼자들의 복음화를 위해 가정에 주력하는 다른 이들과 함께 더 사명을 다하도록 불리어졌음을 느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시간을 더 내어주고, 서로 지탱해 주기 위해,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보조와 가까이 있어 주어야 하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¹ Dal TG2 delle 20:30 del 03/10/2014 – servizio al minuto 22'40" – su RaiDue.

Adriana: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인사전해 주세요!

Emerthe: 저희도 여러분에게 인사보냅니다. (*applausi*) 공동체는 소식보고 모임을 위해 브룬디에 갔습니다.

Adriana: Grazie, ciao!

Salvatore: 안나와 알베르토, 여러분은 새가정 운동 책임자이고 교황청 가정 평의회 멤버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누구와 계속해 이 현실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앞에서 오늘 날 가정이 처한 도전들에 대해 언급했는데, 알베르토, 시노드에서 드러난 가장 의미 있는 요점들은 무엇인가요?

Alberto: 우선 거대한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를 통해 가정을 위한 교회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가정에 관한 첫 시노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문지를 통해 전 세계에 대해 조사하고, 오늘 날 전 세계 가정의 상황을 사진 찍기 위한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시노드 첫 부분의 바탕이었습니다. 그 다음 13 쌍의 부부들이 시노드 주교들과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해 초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중에 새가정 운동이 제안했던 카싱가 가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최종 문서에 반영되었는데, 이 표현은 이런 현실 속에서 평신도, 기혼자, 사제들의 현존의 결실이기도 한 거대하고 새로운 관점을 전해주었던 주교단을 부각시켰습니다.

Salvatore: 주교단에 대해 말했는데, 미디어들은 시노드의 여러 단계에서, 가시성이라는 좋은 일을 하기는 했지만 시노드 주교들 사이의 분열에 대해 말하기에 이르렀는데, 알베르토가 보기에 정말로 그러했는지요?

Alberto: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미디어 부분이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오늘 날 가정의 방대한 문제 앞에서 비전이나 사고의 확실성을 지니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시노드의 가장 큰 결실은 이런 주교단으로부터 하느님과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더 분명한 여정의 노선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진리와 자비를 함께 연결시키기 위해 이런 일의 결실이었습니다.

Salvatore: 알베르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안나 차례입니다. 이 시기 동안 가정 분야에서 새가정 운동이 해 왔던 경험을 한 마디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는지요?

Anna: 환영, 또한 동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결혼했는지, 동거하는지, 별거했는지, 자녀들의 성향이 어떤지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판단 없이 모두를 받아들여야 하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보다는 행위로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환영으로, 오늘 날 매번 더 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망을 통해 고독에서 벗어나고, 자기 자신을 되찾으며, 용서의

기쁨을 되찾고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가 심할 때는 새가정 운동이 전문가들의 작업과 더불어 일치의 영성이 이 부부들에게 미래를 다시 계획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거자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동반 과정이 있는데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고독 속에서 많은 이들이 성사에 충실히 남아있는 영웅적인 선택을 합니다. 혹은 재혼을 한 별거자들은 조건없이 받아들인데, 그들과 우리는 삶의 한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교회인 가정, 무엇보다 하느님의 사랑의 열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Salvatore: 안나, 알베르토, 정말 감사합니다. (*applausi*)

페데리카, 미카엘라, 메시지들이 어떻게 되가요?

Federica: 많이 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 인사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이런 소식을 알게 되어 기뻐요. 그리고 한 가족임을 체험하게 되어요. 파나마에서 베토와 아드리아나.”

Mikaela: “우리는 100 여 명으로 폰템에서 연결되었어요. 특별한 이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살게 되어 너무 행복해요. 하늘이 보낸 마푸아 끼아라 루빅 소도시에서 우리의 감사와 엠마우스, 예수스에게 특별한 인사를 보내요.”

달라스에서는 “우리는 피정 중인 30 여 명으로 전 세계와 연결된 것은 너무 멋진 일이에요.”

Salvatore: 좋아요. 계속해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applausi*)

CON I NUOVI ELETTI

Salvatore: 이름을 잘 얘기하기를 바라는데, 제 옆에는 파시앙스가 있습니다.

Patience Lobe: Patience.

Salvatore: Lobe?

Patience Lobe: Lobe.

Salvatore: E Paolo Mottironi.

Paolo Mottironi: 더 쉽지요.

Salvatore: Più facile!

이들은 막 선출된 사람들로, 이 시기에 열리고 있는 남녀 솔선자 총회의 어제 선거에서 선출되었습니다. 50 여 명의 남녀 솔선자들이 같이 왔는데 (*applausi*), 이들은 카스텔간돌포에 모인 400 여명의 솔선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에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applausi*)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파시앙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룬 출신이지요?

Patience: 네.

Salvatore: 파시앙스의 삶이 굉장히 모험적이고, 정치에도 종사했고, 많은 일을 겪으셨는데, 무언가 얘기해 주시겠는지요.

Patience: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순 없겠지만, 저는 이런 모험 속에서 제 자신을 하느님의 사랑의 도구로 보아요. 그분께서는 내가 모르는 사랑의 계획으로 이 도구를 준비시키셨어요. 정말 그랬다고 말할 수 있어요.

Salvatore: 감사합니다. 어제 뵈었을 때의 사진들이 있는데, 감동을 줍니다. 어제에 대해 무언가 얘기해 주시겠는지요.

Patience: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는데, 자연스런 감정 외에 그 어떤 것도 느끼지 않았어요. 아침에 했던 목상이 떠올랐는데, 제게는 준비 작업 같았어요. 그 목상에서 끼아라는 나는 사업회의 창시자이지만 끼아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단지 이것만이 떠올랐어요. 나는 여자 솔선수 책임자로 선택되었지만 파시앙스로베가 아니라 이 가치를 앞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전 사업회와 함께 하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예요.

Salvatore: Bellissimo. Auguri, siamo con te. (*applausi*)

바올로 모틸로니는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것이 두 번째 선거이고 재임되셨기 때문입니다.

Paolo Mottironi: 두 번째는 마치 처음인 것 같았어요. 감동적인 경험이었고, 정말 큰 감동을 느꼈어요. 하느님의 순간으로, 하느님에게서 사업회를 위한 도구로서 두 번째 임기를 부여받는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 메시지가 오고 있는데, 답장하기 위해 일주일이 걸릴 것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는 딸이 보낸 것으로, “축하해요.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싫증을 내지 않는지요?” 라고 적었어요. (*applausi*)

Salvatore: Bene, auguri, auguri.

이제 소개해야 할 순서는 안토니오 바체라르 신부님 차례입니다. 안토니오 신부님도 지난 주에 선택되셨는데, 사제 포콜라리노와 부제 총회가 지난 주에 열렸고, 이 총회에서 선출되셨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얘기해 주시겠는지요.

Don António Bacelar: 두려움과 떨림의 순간이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들의 힘을 생각했습니다. 후보자였던 다른 두 명과 함께 엠마우스에게 우리를 소개했을 때 우리는 “세 사람이지만 하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엠마우스는 우리에게 “네 명이지만 우리는 하나예요.”라고 답했고, 그 순간 전 사업회가 이 모든 것을 앞으로 가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데레사 성녀에 대해 읽고 있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형제에 대한 사랑 안에 있을 때 짧은 시간 안에 노고 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한 주간이 그러했습니다.

Salvatore: Bellissimo, bellissimo. Auguri anche a te, António, davvero, davvero. (*applausi*)

GEN 4: PORTIAMOCI A CASA... L'AMORE!

Salvatore: 6 월 합동전화 이후 오늘까지 여러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마리아폴리, 공유경제 학교 등등. 이번 합동전화를 위해서 우리는 더 어린 4 젠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자 했습니다.

Un gen 4 (in italiano): 너에게 4 젠은 뭘 뜻하지?

Un gen 4 (in italiano): 그리스도인으로, 간단히 말해 그리스도인이야. (musica)

Una gen 4 (in francese): 사랑하고, 나누고,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거야. (musica)

Un gen 4 (in slovacco): 내 생각에 용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 (musica)

Una gen 4 (in tedesco): 내게 4 젠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뜻해. (musica)

Un gen 4 (in italiano): 욕이나 기분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해. (musica)

Un gen 4 (in italiano): 우선, 질문이 뭐였지? (musica)

Un gen 4 (in italiano): 내게 4 젠이 되는 것은 중요한데, 예수님 곁에서 사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해.

Un gen 4 (in italiano): 누군가 다치면 나는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말 해. (musica)

Una gen 4 (in tedesco): 4 젠들은 많이 사랑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도 사랑해.

Una gen 4 (in italiano):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 그렇기에 때론 놀리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해, 하지만 나는 좋게 얘기하고자 하고 계속해 사랑하려고 해. (musica)

Una gen 4 (in francese): 종이로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 하느님께 온 세상을 비추어 달라고 청하기 위해 종이를 자르고 있어.

Una gen 4 (in slovacco): 우리는 모든 나라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Una gen 4 (in italiano): 내게 평화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야. (musica)

Un gen 4 (in italiano): 뒤에 그린 그림은 특별한 자동차로, 사랑의 행위라는 휘발유로 움직여. (musica)

Una gen 4: (in italiano): 우리는 판매용 팔찌를 만들고 있는데 거둔 돈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보낼거야

Una gen 4: (in italiano): 그거 내게 줄래? (musica)

Un gen 4 (in slovacco): 여기에 있는 것이 정말 좋은데 게임도 너무 재밌어요!

Una gen 4 (in inglese): 이 대회를 마치고 집에 사랑을 가져가요. (*ambiente e applauso*)

CANTIERE UOMO-MONDO

Adriana: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주요 행사는 세계인 워크숍이었습니다. 23 개 국 530 명의 청소년들은 7 일 동안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교 오히킨스 소도시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중앙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24 개 장소에서 함께 지내며, 구체적인 여러 프로젝트를 위해 소매를 걷어 부쳤습니다. 이들은 일치를 위한 청소년들로, 지구 상 여러 곳에서 동시에 고통받는 이들과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제 오히킨스에서 열린 “세계인” 워크숍에 관해 아르헨티나에서 보내준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canzone*)

Angelica – Argentina (in spagnolo): *Ciao!*

José – Colombia (in spagnolo): *Ciao!*

Angelica (in spagnolo): 20 개국의 청소년들이 도착하면서 세계인 작업장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 도전들을 직면했어요.

José (in spagnolo): 언어의 장벽을 부수고,

Angelica (in spagnolo): 모르는 이들에게 마음을 열며,

José (in spagnolo): 어려운 것을 내어주고

Angelica (in spagnolo): 용서할 줄 아는 것이예요.

José (in spagnolo): 저녁에는 각 나라 별로 자신의 문화를 소개했고, 전통 음식과 각 나라의 정보를 전해주었어요. 우리는 스포츠, 정치, 춤, 음악 등 여러 워크숍에 참여했어요. 중요한 것은 형제애의 시각을 지니고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Angelica (in spagnolo): 일치된 세계를 위한 청소년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문하면서 현실성에 관한 주제들에 대해 토론했어요. (*musica*)

Pablo – Bolivia (in spagnolo): 버림받으신 예수님에 대해 말했던 것 중 무엇이 더 마음에 남았는지요?

Louis – Francia (in francese): 버림받으신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들 때마다 늘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의문을 지니신 후에 부활하셨고, 계속해 많은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늘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고, 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예요.

(*musica, saluti in spagnolo e didascalia: L'avventura continua... – applauso*)

Adriana: 이 자리에는 이 워크숍에 참여한 3 명의 주역들이 있습니다. 각자 소개해 주시겠어요?

Gabriele: 가브리엘레.

Silvia: 실비아.

Emanuele: 엠마누엘레.

Adriana: 가브리엘레, 두 번째 주에 무슨 일을 했으며, 어디에 갔는지요?

Gabriele: 두 번째 주에 우리는 그룹으로 나누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의 24 개 도시로 갔어요. 우리 그룹은 아르헨티나 멘도자에 가서 매우 가난한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변두리에 살고 있는 한 공동체를 도와주며 아주 강한 경험을 살았어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Adriana: 감사드리고, 이제 두 명의 아르헨티나 청소년들의 인상문을 들어봅시다.

Alfonso, comunità Abba Guaraní, di Yacui – Salta – Argentina (in spagnolo): 오늘 저는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인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러 왔고, 우리의 문화를 알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일하며, 매일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기 위해 왔어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어요. 예전처럼 만남의 장소가 다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경험은 이 장소를 페인트칠하는 것이었어요.

Clara – Argentina (in spagnolo): 모두들 간에 살았던 큰 일치가 얼마나 강한 자극을 가해 주었는지 인상적이에요. 활동, 대화, 모든 것이 차츰차츰 내게 양분을 주었고,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를 밀어주는 내적인 부유함이 되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것을 통해 일치된 세계를 촉진시키겠지만, 세상의 다른 곳에서 누군가도 같은 것을 찾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applauso*)

Adriana: 실비아, 여러분이 얘기해 주는 것을 통해 잊지 못할 경험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크숍에 무엇이 있는지요?

Silvia: 집으로 돌아와서는 세 번째 단계라고 불리는 것이 시작되었어요. 몰타섬에서 청소년들은 대통령에게 그들의 경험을 얘기하며 500 명의 세계인이 되돌아 왔지만 70 억의 세계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반면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그 도시의 한 구역의 구청을 움직이며 생태학과 관련된 활동을 했어요. 아일랜드에서는 여러 학교에서 경험들을 나누기 시작했고, 워크숍 중에 시작했던 사회 활동을 이끌어가기 위해 파라과이에 자금을 보내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Adriana: 실비아에게 감사드리고, 엠마누엘레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요?

Emanuele: 이탈리아인이 우리는 세 번째 단계를 조직하기 위해 도착한 지 얼마 후에 로피아노에서 만났어요. 그렇게 전 이탈리아를 돌아다니는 이동하는 워크숍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들이 드러났어요. 아니면 전 이탈리아를 일치시키기 위해 다른 행사들이 드러났어요. 이 외에도 다른 공동체와 접촉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했었던 살타의 젠들과 접촉하면서 여기서 이제 물질적인 기여를 통해 도와주고 있어요.

Adriana: 엠마누엘레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달했나요?

Mikaela: 리버풀에서는 “우리는 40 여 명의 3 젠들로, 거대한 이 가정에 속하게 되어 행복해요.” 라고 적었어요.

Federica: 그리고 “저는 리사이고 젠이에요. 러시아에서 인사보내요.”

“우리는 사업회의 심장에 있음을 느껴요. 브룬디, 루완다, 콩고 사람들이” 라고 적었어요.”

SFIDE E PROSPETTIVE DEI FOCOLARI DOPO L'ASSEMBLEA

Adriana: 2014 년 9 월은 포콜라레 운동 총회로 새겨진 달입니다. 제 옆에는 잔카를로가 있습니다.

잔카를로는 6 년 간 공동회장으로 사셨으며, 이 사실은 포콜라레 운동의 많은 현실들, 국가들을 알게 해 주었고, 또한 다양성과 복합성을 보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임기가 끝난 후 오늘 마음 속에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Giancarlo: 첫 번째 말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지리학적 분포를 통해 사업회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된 것은 이 시기 동안 길을 걸어갔고 다시 살았으며, 여러 문화에 다라 폭발했던 한 카리스마를 경험하도록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형제들을 만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함께 하지만 개별적인 수많은 일치의 순간을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마음 속에 뭘 간직하는가요? 이 경험은 제게 경험 중에 경험을 하도록 해주었는데, 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의 척도에 이르기까지 넓혀지도록 불리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한지 물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에게 “아무 것도 잃지 않도록 하라”고 끝에 말씀하셨을 때와 같다고 느낍니다. 이 마음을 넓히는 것은 계속되어야 하고,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제 삶이 이 순간 선물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데, 이전에도 그랬듯이 하지만 이 순간 매 순간마다 사업회를 위한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제게 큰 기쁨을 줍니다.

Adriana: 감사합니다. (*applausi*) 마치 우리에게 인계를 건네주는 듯 합니다. 이 시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40 년 전의 이 강당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양철 지붕과 자갈 바닥, 그 때는 72 년 여름이었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500 여 명으로 끼아라가 왔었습니다. 끼아라의 말은 강력했고 강했습니다.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주었고 제게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은 오늘 날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Chiara Lubich (Congresso gen, 22 luglio 1972): «... 이해할 수 없는 한 재해로 인해 가장 드높은 가치가 마치 거대한 마천루가 부서지고 쓰러지는 것 같은, 이 무서운 오늘날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잔인한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자신 안에서 되찾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탄생시킨 (...) 세계인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단지 한 인간일 수 없고, 인간의 전형이어야 함을, 곧 버림받은 예수님 임을 즉시 짐작하게 됩니다... ».

Speaker: 1972 년 7 월 22 일. 끼아라 루빅은 젊은이들과 얘기하며 처음으로 “세계인”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포콜라레 운동 총회의 결론인 9 월 26 일 알현에서 바로 같은 말을 되풀이 말씀하신다.

Papa Francesco (Città del Vaticano, Udienza 26/09/2014): « 끼아라 루빅은 살아 생전에 참으로 현실성을 지닌 한 표현을 고안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날 “세계인”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 마음, 지식을 지니기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자리잡은 필요성, 걱정, 희망을 알아보고 해석할 수 있는 남녀들을 형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Speaker: 총회의 일을 통해 열쇠가 되는 세 마디 말이 나왔고, 이 말들은 다가올 미래를 위한 포콜라레 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요약해 준다. “나가는 것”, “함께”, “적절한 준비를 갖추어” 이다. 이것은 오늘 날 인류의 고통과 희망에 답하기 위해 “포콜라레 세상”에서 보내 준 3650 개의 기여들에 관해 전체 모임과 32 개 그룹 모임에서 일한 것을 간추린 요약이다.

137 개 국의 여러 연령층, 성소, 종교를 지닌 500 여 명은 매혹적인 친교의 경험을 했다. 3 주간 그들은 경청, 신선함, 환영, 서로간의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했다. 젊은이들과 여러 교파, 여러 종교, 비종교적 신념을 지닌 참석자들의 기여는 박차를 가해주었다.

Agustín Steinbach , Argentina: (in spagnolo sottotitolato in italiano) 이 총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그룹 모임에서 세상 곳곳에서 도달한 청원들에 대해 일했을 때였습니다. 그룹에서는 연령과 문화의 상이성을 볼 수 없었고 동시에 매우 부유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날 세상의 문제에 포콜라레 운동이 어떻게 답하는지에 관한 전망과 활동 노선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Dagmar Haake , Germania: (in tedesco sottotitolato in italiano) :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고, 성체에 관한 올 해 담화를 듣는 것은 제게 이 현실의 결실인 듯 했습니다. 저는 마리아 사업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깨닫기 위해 모든 것을, 제 자신 전부를, 생각을, 한계를, 제안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Bernardette Ngabo, Centro Africa: (in francese sottotitolato in italiano):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학교였는데, 투표나 청원의 순간이든, 규칙에 관한 것이든 진정 그러했습니다. 늘 내 생각에 의문을 지녀야 했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면서 이 생각은 정화되거나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최종 결과로 기쁨과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Glauco Venuti, Italia: (in italiano) 제가 했던 가장 강한 경험은 다수의 생각을 일치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회를 시작하며 우리는 성령을 청했고, 누군가가 성령은 결과에서만 아니라 과정 중에서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의 모두 동의하는데 이르지 못했던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멈추어 매우 깊은 영혼 나누기를 하는 것은 중요했는데, 그렇게 각자의 관점과 서로 다른 선택 또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내린 결정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의 결정도 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대표된 총회의 차원에서 한 이 경험이 각자를 위해 엄청난 부유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Noreen Lockhart, Gran Bretagna: (in inglese sottotitolato in italiano): 엠마우스와 헤수스가 함께 무대에 올라갔을 때, 헤수스는 “엠마우스는 지속성을 대표하고 내가 새로움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움”을 대표합니다. 우리 둘 다 새로움을 대표하는데, 함께 여기서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건설하면서 총회를 건설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것도 이것으로, 우리 각자가 새로움이고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새로움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Peter Grimheden, Svezia: (parla in italiano) 교회의 분열로 인해 우리 안에 느끼는 상처에 대해 얘기했던 순간은 정말 중요했는데, 우리가 여러 교회에 속해 있지만 총회의 일에 온전히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예수님도 상처를 지니셨고 부활 후에도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상처들이 더 이상 아픔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다양성과 더불어 온전히 일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적 표징이고, 교회이며, 하나이고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Laura Maria Van Dun, Olanda: (parla in italiano) 제게 총회가 어떠했는지 한 마디 말로 표현하자면 “신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사업회의 미래를 위한 제 신뢰가 얼마나 큰지, 엠마우스가 우리 젊은이들을 그리고 우리 운동의 새로운 모형 안에서 지금 시작하게 될 모든 것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applauso)

IN DIALOGO CON MARIA VOCE (EMMAUS) E JESÚS MORÁN

Salvatore: 총회 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거의 덧붙일 다른 것이 있는지 묻게 될 것이지만, 제게는 그렇지 않고, 더 좋은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마우스와 예수스에게 이에 대해 계속 얘기할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Emmaus: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지요.

Salvatore: ... 엠마우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mmaus: 좋아요.

Salvatore: 합동전화를 야생 거위 떼가 날아가는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엠마우스에게 소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총회의 결론 때에도 다시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엠마우스가 사용하는 그 영상 뒤에 무엇이 있는지요?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mmaus: 내게는 이 영상이 매번 더 많은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영상을 보면서 다른 때보다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는데, 함께 날아가는 비행의 결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각자는 함께 날아가는 것으로부터 더 강해지는 이런 능력을 얻고, 서로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 멀리 바라보고 확신을 지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얻게 되어요.

총회 동안 나는 이것을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거위 떼의 영상이 전 세계에서 오고, 이미 비행을 시작했고, 방향을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날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듯 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함께 하며 우리는 이 비행을 함께 체험했고, 이 비행은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를 지니고 있지만 이 목적지를 함께 바라본다면 도달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함께 이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으로, 맨 뒤에 있는 사람, 선두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날아가는 것, 목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applausi)*

Salvatore: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시대는 큰 변화의 시대로, 앞에서 가정에 대해 말했지만, 많은 분야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들을 제시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긍정적인 것이지만, 예를 들어 고립하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경향은 그렇지 않으며, 많은 현실 속에서 그러합니다. 포콜라레 운동에 속한 우리에게도 변화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모습, 혁신에 대해 말했고, 포콜라레가 이동하며,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통합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사업회는, 우리 운동은 변화하는 인류와 사회에 무언가 해야 할 말이 있으며, 우리는 형제애를, 일치된 세계와 관련된 무언가를 말해야 하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mmaus: 나는 정말로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데, 세상은 변화하고 우리도 세상과 함께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혼자서 바뀌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변화해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의 혁신을 보는 것은 내게 늘 인상적이었어요. 이 청소년들이 어느 순간 모든 장벽을 너머, 언어의 상이성과 모든 것을 너머 다른 사람의 조국을 내 조국 처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인상적이예요.

바로 오늘 제네바의 한 그룹의 젠들에게서 메일을 받았는데,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의 전 젠들을 위한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스위스에서 그 모임을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도전들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화합해야 하는 다른 언어들이 있을 것이고, 함께 놀아야 하는 다른 사회적 상황이 있을 것이지만 젠들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들이 이미 도전들 너머에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서 도전 너머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곧 도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것들을 발견해요. 하지만 우리가 목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곳을 바라보면, 우리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곳”이 보편적 형제애임을 생각해 보면, 이는 예수님께서 성부께 청하셨던 것으로, 분명히 그분의 바램, 그분의 꿈이에요.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일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하느님의 사업회를 위해 일해요. 내 생각에 아름다운 것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계획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예요. 작은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이를 실행하게 되어요. 스위스에서 이 젠들의 모임은 작은 발걸음이겠지만, 일치된 세계를,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상이성을 이겨내는 것을,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발걸음일 것이예요. 내 생각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듯 했으며, 세상에 가능해요. 우리는 그 발걸음을 혼자서 내딛지 않아요. 가능한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해요 라고 말하기 위한 예언적 표시인 것 같았어요.

물론 발걸음들은 다를 것으로,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프리카를 생각해 보면 도전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언어의 상이성, 경제적 차이점, 장벽들, 국경들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건너가는 것을 막아요. 전염병은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손을 잡을 수도 없겠지만 마음 속에 서로 만나고 일치된 세계를 건설하려는 이런 원의를 갖고 있어요. 도전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젊은이들, 청소년들과 함께 도전들을 너머 바라보고, 아르헨티나에서 살았던 우리의 청소년들이 지녔던 용기를 갖기로 해요. 그들은 아무 것도 걱정하지 않고 전 세계로 갔어요.

Salvatore: 정말 아름답고 좋은 말씀입니다! (*applausi*)

Adriana: हे수스와는 키워드인 세 마디 말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보다 우선 “밖으로 나가는 것”과 “함께” 라는 이 두 마디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나가는 중,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는 달혀 있었는가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새로운 것이 있는가요?

Jesús: 지금 끼아라가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난 후에 당연히 새로운 박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끼아라가 세계인을 선포했을 때의 그 박차를 우리가 지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달혀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아침 우리는 손스타트 운동 100 주년을 위해 교황님께 갔었어요. 엘리와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요. 교황님께서는 모임 내내 스페인어로 말씀하셨는데, 공식언어가 스페인어로 영어가 아니었어요. (*risata*) 교황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중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심은 교황청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며, 운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박차, 새롭게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상 나가는 것은 카리스마의 특수 목적 우트 옴네스를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나가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오늘 날 카리스마의 중심을, 가장 중요한 것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운동이 긴 세월을 살아왔고, 그 기간 동안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형성되어야 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에요. 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에게로 집중하도록 했어요. 교황님께서는 오늘 아침 양털을 빋질하는 것에 대해, 마치 우리가 거기에 있으며 양털을 빋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양털을 빋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가야 하고, 양들을 신중하게 취해야 할 것이에요.

구조들은 더 성숙하고, 더 전적으로 나가기 위해 있어요. 이것은 나가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올 한 해 내내 함께 이에 대해 발견할 것으로, 중요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함께, 우리는 일치의 운동이기에 밖으로 나가는 우리의 방식은 함께일 것이에요. 아마 오늘 우리가 깨달았을 것으로, 우리만 함께가 아니라, 우리가 나가면서 보게 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곧 다른 이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예를 들어 교황님과의 만남 후에, 이리데와 세베린과 함께 유럽을 위해 중앙 위원회의 몇몇 사람들을 만났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경험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리스찬적 의미에서 유럽에 영혼을 다시 전해주기 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치의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함께인 것은 당연하고, 우리처럼 나가고 있고, 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곧 만남의 문화의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에요.

Adriana: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applausi*)

적절한 준비를 갖추어, 이에 관한 질문은, 제게 이 말은 조금 놀라움을 주었는데,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성받기 위해 멈추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총회는 “적절한 준비를 갖추어”라는 이 말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요?

Jesús: 총회는 양성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모임으로 채워야 할 것임을 말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총회는 결론 문서의 한 부분에서 이에 대해 매우 잘 설명했어요. 오늘 날 우리는 카리스마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학문적으로 토대를 갖춘 지혜로운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해요. 이 말들이 문서에 적힌 말로, 적절한 준비를 갖추어는 이것을 뜻해요.

물론 카리스마에 대한 이런 자각은 더 잘 나가도록 해 주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끼아라가 말했던 카리스마를 깨닫게 되면 당연히 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기 위해서 적절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끼아라가 세계인을 말했을 때 무엇을 뜻하고자 했는지 더 잘 깨닫기 위해서예요. 이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필요해요. 이와 더불어 우리의 나가는 것은 더 전적이고, 더 성숙하며, 더 비옥하고, 더 효과적이며, 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에요.

Adriana: 감사드립니다! (*applausi*)

Salvatore: 드러난 상황들은 제게 계속해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을 확인해 줍니다. (*risata*)

Emmaus: 무엇보다도 살아야 하지요.

Salvatore: 살아야 하는 것, 엠마우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독재자로 합동전화는

Emmaus: 끝나가고 있지요.

Salvatore: ... 그러므로 이제 끼아라의 생각으로, 생각이라기 보다는 끼아라가 2000 년 9 월 루치아나 스칼라치에게 주었던 답입니다. 엠마우스, 제가 보기에 엠마우스가 이 비디오를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mmaus: 사실을 말하자면 끼아라가 이미 소개를 해요.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끼아라는 우리가 총회에서 알게 된 한 사람에게 답을 하는데, 다른 신념을 지닌 루치아나 스칼라치로, 그녀는 끼아라에게 사업회에서 그들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질문해요. 끼아라는 이 답으로 다른 신념을 지닌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주어요.

교황님께서 알현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대화에 우리를 데려다 주는데, 그분께서는 대화란 값싸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어려운 것으로, 예술이에요. 끼아라는 예술에 대해 말했고, 여기에서도 예술에 대해 말해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런 관점을 지니지 않는다면, 총회에 관한 소식의 시작 무렵 세계인에 대해 우리에게 말했던 그 관점을 지니지 않는다면, 열린 마음을 지니고, 오늘 저녁 밖으로 많이 드러났던 환영의 정신을 지니고 사람들 가까이 있기 위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목적을 향해 함께 걸어가기 위해 모든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에요. 단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오늘 날 발걸음을 내딛는 것만이 아니라 목적지 까지 우리의 모험을 계속할 것임을 희망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녁 헤수스가 말했던 카리스마의 재발견과 더불어 끼아라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곧 카리스마는 늘 카리스마로, 끼아라는 카리스마적인

방식으로. 첫 번째들도 카리스마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살았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날 카리스마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살아야 해요. 끼아라는 우리를 여기로 부르고 우리는 이에 답하고자 해요.

Salvatore: 감사합니다. (박수)

Emmaus: 여러분에게 감사드려요!

Salvatore: 이제 끼아라를 보기로 합시다.

“QUELL’ARTE CHE SI CHIAMA DIALOGO”

[...]

끼아라: 이제 루치아나의 질문이에요.

엘리: “사업회 내부에서 협조자로서 선의의 뜻을 지닌 사람들이 더욱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회의 구조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끼아라: 이제 이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하느님께서 사업회를 이루시기에, 우리는 인류의 모든 표현들, 곧 가톨릭 신자, 타교파 그리스도인, 다른 모든 종교인들, 그리고 다른 신념을 지닌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사업회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만일 끼아라가, 예전 이름인 실비아 루빅이 만든 사업회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는 개신교 신자들과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말했을 것이에요. (...)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종교들과는 이렇게 다른 점이 많은데! (...) 불가능해요” 라고 말했을 것이에요.

다른 신념을 지닌 사람들과는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 이상으로 원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들과 무엇을 공유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을 것이에요. 반면에 하느님께서 이 사업회를 만드셨기에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분은 모두의 아버지이시고 모두를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모두를 함께 하도록 하며, 우리에게 -요한 23 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은 서로를 분리시키는 것보다 일치시키는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일치시켜 주는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세레 성사, 신구약성서, 초기 공의회와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들과 이어주게 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우리를 이어주는데, 그분은 우리가 하나였을 때의 성인이에요. 베네딕도 성인과 많은 성인들이 우리를 이어주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어주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모방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요. 모두가 프란치스코 성인을 닮으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그러니 우리를 갈라놓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로 해요.

이처럼 다른 종교와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모든 종교에 존재하는 그 유명한 “황금률”을 발견했는데, 모두가 사랑으로 불러졌기 때문이에요.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DNA 에요. 황금률은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지 않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하지 말라” 라고 해요. (...)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교인들은 마호메트를 믿지요.”라고 말하지 말고, “코란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함께 살기로 합시다.”라고 해야 해요. 이는 “여러분은 사랑하고 사랑하십시오. 사랑 안에 빛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말씀의 씨앗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씨앗들은 진리들을 뜻하는데, 선택 받은 백성인, 유대 민족이 있었지요, 그렇다고 잊혀진 민족들은 없어요. 하느님께서 그 민족들에게도 조금의 진리를 주셨으며,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유산을 함께 모으는 것이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다른 신념을 지닌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인간적인 부분을 강조하는데, 아마도 그들이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일 것이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도 인간적인 부분을 사랑하고, 그 부분을 강조해요. (...)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커다란 필요성을 느껴요. 우선 여러분은 세상에서 중요한 부분에 속한 사람들이고, 다른 신념을 지닌 사람들로, 믿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편적인 형제애를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유토피아예요. 반면에 여러분이 존재하므로써,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적인 부분에 가치를 두어요. 여러분이 말한 아름다운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 “인간이 인간을 구제한다.”, 우리에게도 인간을 구제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하지만 어떤 인간인가요? 그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인간으로 여러분도 그분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분은 여러분 중 하나이시며, 인간이시기 때문이에요.²

CONCLUSIONE

Salvatore: 끝에 이르렀지만, 마치기 전에 두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Federica: 도달한 수많은 메시지 중에 몇 가지만 읽어보도록 해요.

"아내와 함께 이 합동전화를 보고 있는데, 결혼 한지 61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멕시코의 공동체에 이 합동전화를 전파할 것입니다. 라파엘과 루칠라가" (*applausi*)

²

Da una risposta di Chiara Lubich durante l'incontro con la comunità della zona di Firenze, 17/09/2000.

Mikaela: “아프리카의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에볼라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이보리 코스트의 만 소도시에서” (박수)

Adriana: 감사합니다.

Salvatore: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모두에게 인사전하며 계속해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데, 사이트에 계속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Adriana: 다음 합동전화 때 만나기로 해요. 강당에 계신 분, 연결되신 분 모두에게 인사합니다. 차오!

Salvatore: 차오, 다음에 만나요! (박수)